

문제 1

제시문(가).(나).(다)는 공통적으로 공감과 관련지어 해석할수있다. 그러나 공감의 여부에따라 차이를보인다.

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유태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태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재판과정에서 학살의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학살에 대학 자신의 책임을 다한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증인이 증언한것처럼 평소에 유태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유태인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는등 선량한 행위와 마음가짐을 가졌던 아이히만이 국가의 명에 따라 양심의 가책없이 학살을 행했다는점에서 아이히만이 유태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시문(나)에서 시적화자는 포스터속의 비둘기에 공감하고있다. 포스터속에는 비둘기가 날 수있는 하늘이없고 마실공기도 없는데 화자는 이에 답답함을 느낀다. 또 비둘기가 주리를 틀고 누군가 비둘기를 찢는다해도 피한방울 나지않으며 죽지못해 한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실제 비둘기와는 다른 포스터속의 비둘기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므로 비둘기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다)를보면 (가).(나)와 다른 두드러진 점이있다. 제시문(다)에서 아킬레우스에게 잡힘 뤼카온은 목숨을 구걸하는데 아킬레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뤼카온을 죽이게된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알 수있다. 하지만 뤼카온을 죽이기 전에 목숨을 구걸하는 뤼카온을 설득하는과정에서 아킬레우스가 죽음의 절대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훌륭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도 죽었을 뿐만아니라 자신까지도 결국은 죽게되리라는 점을들어 뤼카온을 설득하고있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죽음에 직면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뤼카온에게 공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죽음은 모두가 맞게되는 절대적이라는것에 공감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